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북연구원(T.063-280-7100/F. 286-9206)
<http://www.jthink.kr>

- **문 의** : 사회문화연구부 장세길 연구위원
(063-280-7173, 010-3246-4824)
- **답 당**: 연구본부장 김진석 선임연구위원
(063-280-7111)

보도시점 : 2018년 9월 20일(목)부터

혐오사회 극복과 포용국가 실현, 문화다양성이 답이다!

세계종교문화축제 vs. 할랄식품단지, 전주국제영화제 vs. 전주퀴어문화축제
포용적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필요

-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워마드와 일베, 난민 찬성과 반대 등 한국 사회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갈등을 빚고 있으며, 혐오사회로 불릴 정도로 혐오표현이 급증하고 있음
-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이슈브리핑(장세길 연구위원 작성)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첨예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혐오사회를 극복하고, 문재인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 비전으로 제시한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화다양성'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함
- 장세길 연구위원은 “한국에서 폭발하고 있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사회적 공모(共謀)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극복방안 역시 사회구조적이어야 한다.”면서, “문화다양성은 사회통합과 더불어 새로운 문화창조를 통한 창의적 지역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바, 포용국가, 포용사회, 포용도시에서 강조하는 포용적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함
- 장 연구위원은 전라북도에는 문화다양성의 원리에 바탕을 둔 예

술적 표현과 타 문화와의 공존이 나타나고 있으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특정 소수자 집단에 대해 차별과 배제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함

- 이와 관련하여 장 연구위원은 4대 종단(원불교·개신교·천주교·불교)이 손을 잡고 종교의 공존과 평화를 실천하는 세계종교문화축제와 달리, 2015년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식품단지 입주 논쟁에서는 할랄식품 도축장이 들어서고 무슬림들이 무차별 유입돼 이슬람국가(IS)의 동북아 테러기지가 될 것이라는 유언비어까지 등장하는 등 ‘무슬림’에 대한 배제가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말함
- 또한 “‘영화표현의 해방구’라는 칭호를 받으며 호평을 받는 전주국제영화제와 달리, 2018년 개최된 전주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하는 지역 내 목소리는 영화 밖 현실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문화적 표현의 차별과 배제가 여전함을 말해준다”고 강조함
- 장 연구위원은 2005년 세계 145개국에 비준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에 따라 2014년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정부나 지자체에서의 문화다양성 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포용적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에서의 과제를 제시함
- 첫째, 현대사회와 지역을 바라보고 운영하는 가치와 철학으로서 문화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함
- 둘째, 지역 내 기관·단체·개인을 대상으로 문화적 차별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와 관련된 행위나 표현이 발견되면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차원의 시정 및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가 필요함
- 셋째, 정부의 정책추진에 발맞춰 전라북도 문화다양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에서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